NS홈쇼핑, 오늘 ‘빼고빼고카페’ 방송

NS홈쇼핑이 23일 오후 11시 55분 ‘빼고빼고카페’를 방송한다. 방송인 안선영이 개발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이다. 하루 2회 식사 후 1포를 180～200ml 물에 타서 마시면 된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함유했으며,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LG,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 발족

LG, 구글·우리銀·EBS와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IT·교육·의료 등 12개 기업 맞손
“모든 산업 상위 1% 전문가 AI 제작”
고도화된 챗봇과 DDU기술 시연
AI개발 기간↓…엑사원 튜닝 공개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에서 글로벌 초거대 AI 생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왼쪽 사진)과 이날 행사에서 협업 계획을 발표한 파트너스 관계자들. 사진제공 | LG전자

LG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상위 1% 전문가 인공지능(AI)’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LG는 22일 국내외 13개 기업이 모인 ‘엑스퍼트 AI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종산업 간 협력을 위해 정보기술(IT)과 금융, 교육, 의료, 제조, 통신 분야 국내외 기업이 모여 구성한 첫 민간 연합체다.

LG AI연구원 주도 아래 구글과 우리은행, 셔터스톡, 엘스비어, EBS, 고려대학교의료원, 한양대학교병원, 브이에이코퍼레이션,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파트너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모든 산업 영역에서 상위 1% 전문가 AI를 만들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초거대 AI 대중화를 이끄는 선두 주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간 수준 대화 가능한 챗봇 소개

초거대 AI는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사고·학습·판단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때문에 특정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유튜브로 진행된 발족식에서 배 원장은 AI 아티스트 ‘틸다’ 등 LG의 초거대 AI ‘엑사원’으로 구현 가능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틸다는 엑사원을 기반으로 한 첫 번째 AI 휴먼으로, 최근 뉴욕 패션 위크에서 의상을 선보인 바 있다.

배 원장은 또 고객 언어에 내포된 감정까지 이해하며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한 뒤 전문 상담사 수준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챗봇 모델, LG화학·엘스비어와 연구하고 있는 심층 문서 이해(DDU) 기술도 시연했다. DDU 기술은 언어와 시각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AI를 기반으로 논문, 특허 등 전문 문헌의 텍스트뿐 아니라 수식, 표, 그림 등 시각적 요소까지 분석해 신약과 신소재 등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축적하는 기술이다.

이날 행사에선 사친 굽타 구글 클라우드 총괄부사장 등 파트너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협업 계획을 밝혔다. 구글은 슈퍼컴퓨터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초거대 AI 개발에 협력한다. 우리은행은 AI은행원 전문성 강화, EBS는 수학 문제 및 해설지 자동 생성, LG전자는 말로 그리는 그림 동화 등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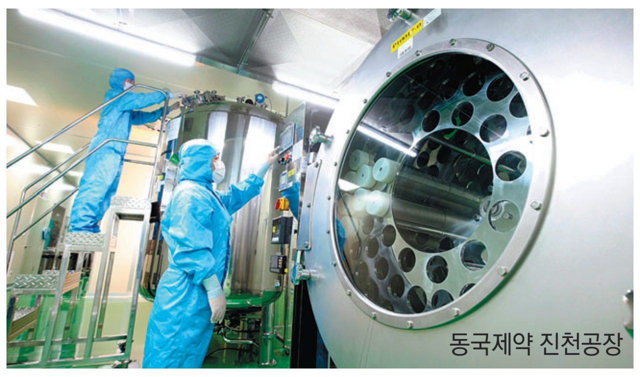
●상반기 중 API 제공

LG AI연구원은 파트너사들에 초거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상반기 중 맞춤형 전문가 AI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 개발 진입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코딩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거나, AI 개발자가 아니어도 손쉽게 웹에서 엑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엑사원 플레이그라운드’ 운영을 시작해 초거대 AI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사의 데이터 보안과 AI 개발 기간 부담을 덜어 줄 신기술 ‘엑사원-튜닝’도 공개했다. 초거대 AI는 학습을 진행하는 인공 신경망의 파라미터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데 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엑사원 튜닝은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90%까지 줄여 처리 속도가 빠르면서도, 정확도는 4배 가까이 높여 성능까지 확보한 기술이다. 엑사원에 금융 분야 언어들만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면 AI 은행원과 같이 특화된 전문가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LG AI연구원은 이에 대해 “엑사원이 말뭉치 6000억 개, 텍스트와 결합된 고해상도 이미지 2억5000만 장 이상을 학습했고, LG 계열사들과 협업해 전문적 데이터도 일정 수준 이상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동국제약 진천공장

“에너지 절감·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동국제약, 미래 위한 ESG 경영 강화

“투명·정확한 정보 공개 통해 기업신뢰도 높일 것”

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이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우선 환경 분야에서의 ESG 경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세계적인 환경기업 프랑스 베올리아사와 협력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및 폐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폐 바이오가스 재활용, 탄소 배출 절감, 폐수처리장 최적화 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 관리 최적화 등의 성과 달성과 이를 통한 국제표준 ISO 14001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 분야의 ESG 경영으로는 화재, 안전사고, 전염병, 환경사고 등에 대한 비상 대응 시스템 및 외주공사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 사업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대응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및 무사고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관련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2019년부터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와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컴플라이언스(CP) 강화를 위한 통합규정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ISO 37001 재인증을 위한 갱신 심사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전사적인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경영 이슈인 ESG경영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ESG 경영 기반을 다져나가고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기업 신뢰도를 높여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동국제약은 지난해 오흥주 대표이사와 각 사업부 임직원으로 ESG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올해는 ESG 위원회와 상설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향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진짜 국내산 김치로 만든 K-스낵, ‘김칩스’ 공식 론칭

토종 김치국물과 국산 쌀로 만들어
김치전의 감칠맛·바삭한 식감 매력

국내산 김치와 쌀로 만든 K스낵, ‘김칩스’(사진)가 출시됐다.

전통 부각 조리방식으로 만든 김치부각을 최초 개발한 김치마스터셰프 신인호 더다늠 대표는 3년간의 준비기간과 투자유치를 통해 기존 김치부각을 김칩스라는 대중 스낵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김칩스는 국내산 고춧가루와 식재료로 담근 토종 김치의 김치국물에 철원 오대쌀을 더해 만든 쌀과자이다. 진짜 김치로 만든 스낵이라는 점에서 김치의 향과 맛을 모방한 시즈닝 김치과자들과 맛의 깊이, 진정성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

밀가루나 트렌스 지방이 첨가되어 있지 않고 우리 농산물로 담근 토종 김치국물에 국산 쌀로 만든 건강 스낵이라는 점, 김치전의 감칠맛과 바삭한 테두리 식감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극적이거나 기름지지 않은 중독성 있는 맛이라는 점이 김칩스의 강점이다.

김칩스 제조원 더다믐 측은 “그동안 김치를 소재로 한 다양한 스낵 제품이 출시된 바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거나 성공한 제품은 거의 없다”며, “김칩스를 통해 우리 김치의 세계화와 더불어 K스낵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칩스는 공식 쇼핑몰을 오픈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10년간 슬롯·운수권 반납”…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조건부 승인

“시장 독점 우려 있어”…조건 부과
미국·EU 등 외국 경쟁당국 승인 남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은 결국 업계 예상대로 조건부 승인이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양사의 결합으로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 이전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사가 합치면서 중복되는 노선은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총 119개다. 이중 공정위는 국제선 26개, 국내선은 14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나 기존 항공사 증편 시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다. 또한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노선에 대해 신규 항공사 진입이나 기존 항공사 증편 시 사용 중인 운수권 반납도 의무화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대한항공은 22일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외국 경쟁당국의 승인이다.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심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핵심 항공시장인 일본, 중국, 미국과 대양주의 호주, 유럽의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아직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 | 뉴시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매직4 임플란트, 무치악 틀니 적응에 도움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무치악 상태가 되면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치아상실로 무치악에 이르는 환자들은 대부분 8～9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전악 임플란트 브릿지 보철이나 전체 틀니를 제작해 사용한다. 무치악 기간이 긴 경우나 염증이 심해 발치를 하면 전악 임플란트 브릿지 보철치료가 불가능하기도 한다. 전체 틀니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고정성 보철이 아니고 이물감이 커 적응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거나 틀니 적응이 힘든 환자의 경우 매직4 임플란트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매직4 임플란트는 상하악 모두 가능하며 무치악부위 중 식립이 가능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4～5개 식립하고 임플란트 상부에 바(BAR)를 연결한다. 그 위에 지지대를 마련하고 자르코니아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임플란트와 틀니의 장점을 모두 가진 치료법이다. 자연치의 씹는 기능을 80～90% 정도 수복해 음식물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매직4 임플란트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에 대한 충분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환자의 잇몸뼈 상태, 위아래 턱의 수평적 관계,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3D스캐너와 3D-CT 등의 필수적인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시술 후에도 임플란트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케어해주는 곳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성수동 우리치과 **강일남**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